

목포시 올해도 '연말 예산털기' 걱정된다

목포시의 '예산털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11월과 12월만 되면 남은 예산을 도로·공원·교통 등 공공시설물 설치나 개·보수 비용으로 과다하게 집행해 물의를 빚어왔는데, 지난해 지출비율이 5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욱이 이런 관행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여 시민사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외적으로 목포시의 부채가 3010억원(2014년 6월말 기준)에 달해 내년도 예산안 수립을 앞두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형편이면서도, 내적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세워진 예산이나 평평 쓰고보자는 식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목포시가 줄곧 주장해 온 '재정 건전성 확보'가 헛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라지지 않는 연말 예산 털기=이는 해당 연도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등이 남으면 다음해 동종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요불급한

약이 이뤄진 것으로 막판 예산 몰아쓰기가 극에 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연말지출 비율은 일반회계(본청)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통과 상·하수도 특별회계,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감안하면 비율은 24.73%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출예산 집행 지침'도 무시=안전행정부(본청)가 지난 2013년 8월 '앞으로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 등으로 남은 예산을 몰아 쓴 지방자치단체는 합동 평가나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연말예산 몰아쓰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안행부의 새 지침에는 ▲연말 예산 몰아 쓰기 방지 ▲행사운영비 집행 시 행사 관련 기념품 구입 최소화 ▲시설 부대비를 여비로 집행시 집행범위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또 지자체는 연초에 수립한 월별 예산 집행계획을 분기별로도 재검토하도록 하고 각 실·과에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부채 3000억원에 시달리는 목포시가 11~12월 연말에 관행적으로 남은 예산을 멸망한 보도블록 교체 등에 '몰아쓰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연말지출 비율'은 지난 2009년 9.2% 수준에서 2013년에는 24.73%로 급증했다. 사진은 가로등 시설(위)과 공원시설.

용품을 무더기로 구입하는 등 지자체의 오랜 '예산 몰아쓰기' 관행은 없어져야 할 적폐의 대표적 케이스"라며 "11월 2차 정례회 때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관행처럼 굳어진 연말 보도블록 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 분야 K 교수의 "가급적 겨울철 보도공사(매년 12월~다음해 2월)를 금지하고, 5년마다 시장이 보도정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며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 방지를 위해서는 '보도정비 소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11월을 20여일 앞두고 올해도 이 같은 연말 예산 몰아쓰기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채가 3000억원에 달한 만큼 시의회와 협의의 거쳐 가능하다면 감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글·사진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21일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복지사각 해소 10대 시책 발표

목포시를 비롯한 전국 30개 기관이 오는 21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민원행정 우수사례 선정 경진대회'에 참가한다.

이날 대회에서 목포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점 추진해온 '복지사각지대 해소 10대 시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본청)와 전국 지자체 응모사례 가운데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30건을 선정하고, 이날 사례발표와 전문가 2차 심사, 질의·응답 등을 거쳐 본선에 참가할 15건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대통령령상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시상금 별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사례발표에 나설 김대식 복지행

정 담당은 "기초수급자 확대 시책은 탈락자·중지자·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한 상담·조사와 함께 23개 동 주민센터 자생조직 가운데 선발된 '좋은 이웃들'을 도우미로 적극 활용해 591세대 939명의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하는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했다.

한편 목포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10대 시책'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확대 ▲주거 취약자 해소 ▲전기수도료 등 체납 지원 ▲연료 빈곤세대 해소 ▲의료혜택 미 수혜자와 식생활 관련세대 해소 ▲구조적으로 어려운 위기가정 관리 ▲장애인 빈곤세대 자활대책 마련과 독거노인 맞춤형 대책 수립 시행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등이 담겼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해대 국제항해실습 '출항'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최민선) 해사계열 및 해양공학 계열 3학년 246명이 지난 7일 '2014학년도 2학기 국제항해 승선실습'을 떠나고 있다. 학생들은 실습선 '새누리호'(4701t)와 '새유달호'(3644t)에 나눠 승선해 일본과 중국을 순방하며 선박운용 실무경험을 쌓고 22~23일 귀항할 예정이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고용청, 우수 강소기업 44개 선정 인증패 전달

광주 지방 고용노동청 목포지청(지청장 황선범)은 최근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을 준 전남 서남권 우수 강소기업 44개를 선정, 인증패를 전달했다.

목포 노동지청은 고용노동부 강소기업과 중소기업청 으뜸기업, 전남도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등이 추천한 기업과 기업규모, 최근 1년 이내 해고율, 근로자 수 증가율, 임금체불 발생여부 등 엄격한 기준을 통해 우수 강소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우수 강소기업에는 구인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직원채용이 이뤄질 때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종합 컨설팅 제공, 각종

고용창출 지원금 승인시 우선지원 등 집중적인 고용서비스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연말과 근로자의 날 등 포상 관련 추천시에도 우선 지원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황선범 지청장은 "이번 전남 서남권 우수 강소기업 자체 발굴, 인증을 통해 지역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직장을 구하려는 청년층이나 취업을 지도하는 일선 학교 등에게 우수한 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연말 지출 비율 작년말 25%로 2009년 비해 3배 늘어 수의계약만 매일 2건 이상... 재정 건전성 확보 '헛구호' 부채 3000억 불구 관행 여전... 불합리 예산운용 개선을

곳이라도 일단 쓰고 보는 지자체의 오랜 고질병이다.

그동안 시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었던 '멸망한 보도블록 교체'가 연말 예산 털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가 최근 공개한 재정 공시에 따르면 '연말지출 비율'은 지난 2009년에는 9.2%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 들어 20.18%로 급증했고 2011년 17.62%와 2012년 15.3%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인 2013년에는 무려 24.73%로 급증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지출 비율과 비교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사더라도 이미 확보한 예산을 모두 써버리기 위한 '예산 털기' 차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2013년 연말 지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출액 770억7400만원 가운데 무려 190억6200만원이 도로·공원·교통·가로등 등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와 개·보수 비용으로 집행됐다. 이 가운데 시설비가 189억1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감리비 1억1500만원, 시설부대비 32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수의계약(2000만원 이하)만 총 96건에 달했다. 이는 45일 동안 매일 2건 이상의 수의계

수로 파악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남비신고플랫폼으로 걸려오는 신고내용 가운데 "왜 겨울철만 되면 멸망한 보도블록을 갈아 치우느냐"는 식의 연말 예산 몰아쓰기에 대한 지적이 10건 중 4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 대책은=내년도 예산을 결정할 때 이 같은 적폐를 걸러낼 수 있는 심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내 '예산결산 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역의회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기초의회에서는 도입한 사례가 없어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목포시의회 장복성 의원(5선)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이 6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합리적 예산집행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월별·분기별 자금 배정 계획을 잘 세워 특정 시기에 시설비 등이 과도하게 몰리는 불합리한 예산 운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홍립 기획복지위원장은 "지자체마다 연말이 되면 멸망한 보도블록을 뒤집어놓는 것은 물론 사무 관리비로 복사용지 등 사무

한국관광공사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www.oceanoc.co.kr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1064

예약 : 061)536-1000

선착순 한정판매

선불 할인 카드란?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 후, 골프장 내장시, 프론트에 카드를 제시하시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 선불 카드 할인표 -

충전금액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그린피 할인율	기명1인 40%	기명1인 50%	무기명팀(전원) 40%
공통 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 요금 안내 -

구분	금액	비고
일일 입장료	주 중	60,000
	주말(공휴일)	90,000
팀당 카트비	60,000	캐디 선택제
팀당 캐디피	100,000	

Event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3만원/주말4만5천원 (카트료 포함)

구매문의 061-536-3952